

## 치아의 생성과정 살펴보기 🐼

치아는 태생 6주에 발생이 시작됩니다.

6 주라고 하면, 어머니의 배가 부를 생각도 하지 않는 때이지요.

그런 시기에 치아가 발생되기 때문에 임신한 줄 모르고 복용한 어떤 약물들은 치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모식도에서, 치아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tooth germ, 치배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.

표면의 상피가 안으로 함입해 들어오고, 함입한 내부의 결합조직에서 세포들이 증식하기 시작합니다. 상피 쪽에서 함입된 세포들이 점점 자라면서 아래에서는 치수의 조직이 형성됩니다.

상피 쪽 세포들은 나중에 치아의 겉을 싸는,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법랑질을 형성하는 법랑아세포로 분화되고, 내부에서는 상아질을 형성하는 조상아세포와 여러 가지 치수 세포들이 분화됩니다.

그런데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약물이나 조건에 의해서 제대로 법랑질이나 상아질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
그런 것을 법랑질 형성부전이나 상아질 형성 부전이라고 합니다.

그리고 태생 5 개월이 되면 칼슘이 침착되기 시작합니다.

그래서 이때가 되면 방사선 사진에서 치아의 외형을 뺏속에서 분명히 볼 수 있게 됩니다.

또 재미있는 것은 법랑질과 상아질 간의 관계인데, 법랑질이 없으면 상아질이 생기지 않고, 상아질이 없으면 법랑질이 생기지 않습니다. 이것을 상호 유도라고 합니다. 결혼을 혼자 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.

5 개월 정도 되면 칼슘이 침착되기 때문에 5 개월 태아에서 이렇게 까맣게 치아의 외형이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비록 치아가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.

어떤 약물을 복용하면 칼슘의 침착과 함께 그 약물이 치아에 들어가서 착색을 일으킬 수 있어요.

테트라 사이클린이 여러 가지로 싸고 좋은 약이지만, 치아의 변색을 야기합니다.

이것은 영구치 앞니에 착색된 것인데, 만일 아이가 2, 3 살 때 질병을 앓아서 테트라 사이클린을 복용했다면, 2, 3 년이 지나 간니가 나올 때 이와 같이 착색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.

© 「궁금해?궁금해!」, 한국창조과학회 제공